2016.10.5. No.29

TRADE BRIEF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동향분석실
심 혜 정 연구원 02-6000-5159, hshim@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우리나라 수출 Top3 국가의 수출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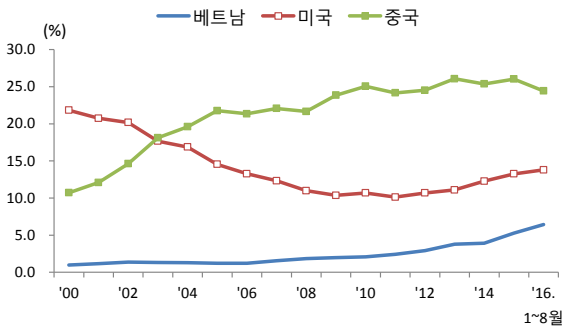
우리나라 상위 3대 수출국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미국, 베트남에 대한 수출 비중은 상승세인 반면 중국의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와 중국의 대세계 수출부진으로 대중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며 수출 비중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수입확대, 우리의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선전 등에 힘입어 대미 수출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우리의 직접투자 증가로 인해 생산이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수출 비중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우리 수출에 있어 미국과 베트남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01. 수출 Top3 국가의 비중 변화

◉ 우리나라 상위 3대 수출대상국에서 미국, 베트남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0년 이후 상승세를 보인 반면 중국의 수출 비중은 하락세가 특징임

- 미국의 비중은 2010년 10.7%에서 올해 1~8월 13.8%로 3.1%p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중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6.4%로 3배 증가
- 반면 중국의 수출 비중은 2013년 26.1%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금년 1~8월 중 24.4%를 차지
- 이에 따라 2010년 미국과 베트남의 비중 합계는 12.8%로 중국 25.1%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올해 1~8월에는 80%를 넘어섬

Top3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



주 : 총수출 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Top3 국가로의 수출 추이

(억 달러, %)

연도	중국	미국	베트남
2010	1,168 (25.1)	498 (10.7)	97 (2.1)
2011	1,342 (24.2)	562 (10.1)	135 (2.4)
2012	1,343 (24.5)	585 (10.7)	159 (2.9)
2013	1,459 (26.1)	621 (11.1)	211 (3.8)
2014	1,453 (25.4)	703 (12.3)	224 (3.9)
2015	1,371 (26.0)	698 (13.3)	278 (5.3)
2016. 1~8월	787 (24.4)	445 (13.8)	208 (6.4)

주 : ( )는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편 상위 3대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

- 상위 3개국의 비중은 2010년 37.8%에서 금년 1~8월 44.7%로 6.9%p 증가한 반면 일본, EU의 수출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각각 4.8%, 9.3%를 차지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순위	국가	수출	
1	중국	787	(-12.5)
2	미국	445	(-5.3)
3	베트남	208	(11.6)
4	홍콩	208	(7.2)
5	일본	156	(-10.0)
총계		3,223	(-8.8)

주 : 2016.1~8월 기준, ( )는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시장의 수출 비중

(%)

	'10	'11	'12	'13	'14	'15	'16 1~8월
Top3	37.8	36.8	38.1	40.9	41.5	44.6	44.7
일본	6.0	7.1	7.1	6.2	5.6	4.9	4.8
ASEAN	11.4	12.9	14.4	14.7	14.8	14.2	15.0
EU	11.5	10.0	9.0	8.7	9.0	9.1	9.3

주 :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02. Top3 국가의 수출 비중 변화 요인 점검

◇ 대중국 수출 비중 감소는 중국의 수입수요 및 수출 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액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 감소 조짐이 나타남

◇ 미국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입 확대,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선전 등으로 우리의 대미 수출 비중이 상승함

◇ 베트남은 우리의 대베트남 직접투자가 증가하며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비중이 크게 상승함

□ 중국 : 수출 비중 정체

◉ 중국의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와 중국 수출부진으로 최근 우리의 대중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며 수출 비중이 정체

-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산업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증가세가 둔화
  * 중국 수입증가율(%) : 38.9('10) → 4.3('12) → 1.1('14) → -18.4('15) → -10.5('16. 1~8월)
  * 중국 소매판매(%) : 17.1('11) → 13.1('13) → 10.6('15) → 10.3('16. Q1) → 10.2(Q2)
  * 중국 산업생산(%) : 13.7('11) → 9.8('13) → 6.0('15) → 6.2('16. Q1) → 6.1(Q2)

- 특히 우리의 대중 수출은 중국 수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아 최근 중국의 대세계 수출부진이 우리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지며 수출 비중 하락에 영향을 미침

  -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한 자릿수 증가세로 둔화된 이후 최근 감소세를 보임
    * 대중국 수출증가율(%) : 28.4('05) → 31.3('10) → 7.9('12) → 6.0('14) → -2.7('15) → -6.8('16. 1~8월)

◉ 최근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총수출 대비 대중국 수출 비중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 EU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상승하고 있으나 ASEAN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2013년을 고점으로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의 내수시장 성장과 함께 수입의 고급화, 생활소비재 수요 확대가 진전되며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

- 인도네시아(2.4%p), 한국(1.6%p), 태국(0.8%p), 일본(0.6%p) 순으로 2013년 대비 수출 비중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정책으로의 변화,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으로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며 대중 수출 비중에 부정적으로 작용

●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15년 73.4%)은 여전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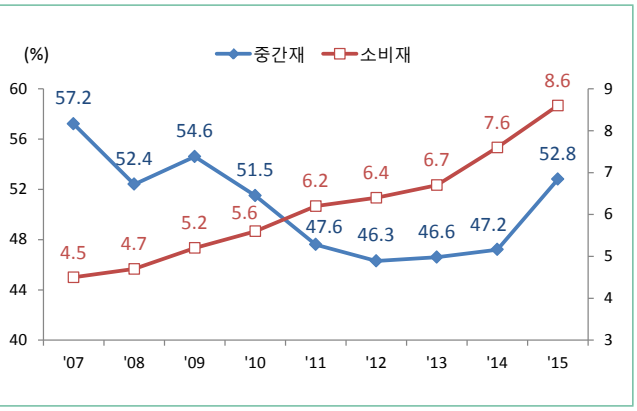
* 대중 중간재 수출증감률(%) : 33.4('00) → 28.4('05) → 32.9('10) → 3.0('12) → 3.3('14) → -2.1('15)

대중국 수출 비중(%)

국가	2010	2013	2015
미국	7.2	7.7	7.7
EU	2.9	3.2	3.5
인니	9.9	12.4	10.0
말련	12.5	13.4	13.0
태국	11.1	11.9	11.1
필리핀	11.1	11.2	10.9
한국	25.1	26.0	24.4
일본	19.4	18.1	17.5

주 : 총수출 대비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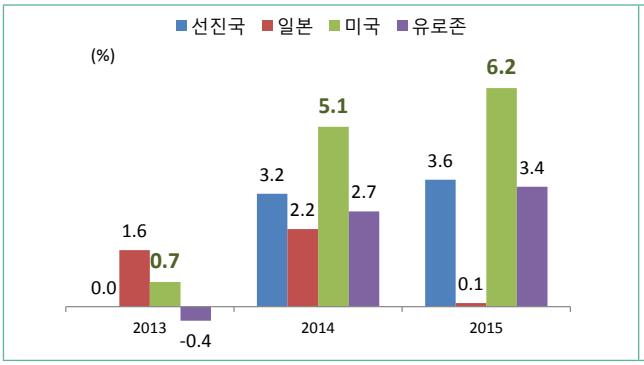
자료 : 중국해관총서, 한국무역협회

□ 미국 : 수출 비중 상승

◉ 미국은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비교적 우리의 수출 감소세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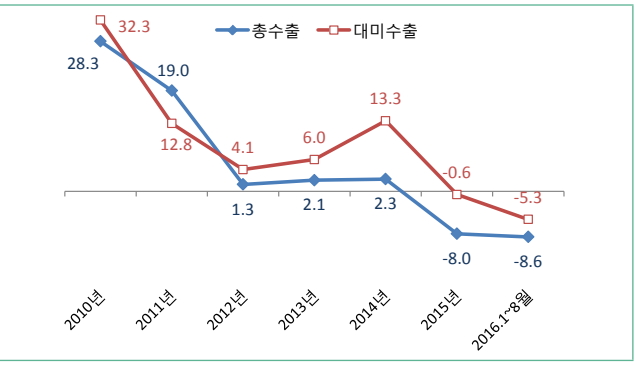
● 세계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입물량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의 대미국 수출은 총수출에 비해 감소세가 크지않음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율



자료 :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우리의 대미 수출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휴대폰 및 가전, 생활용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

  * 대미 소비재 수출증가율(%) : 5.4('10) → 18.6('11) →7.8('12) → 10.8('13) → 12.9('14) → 11.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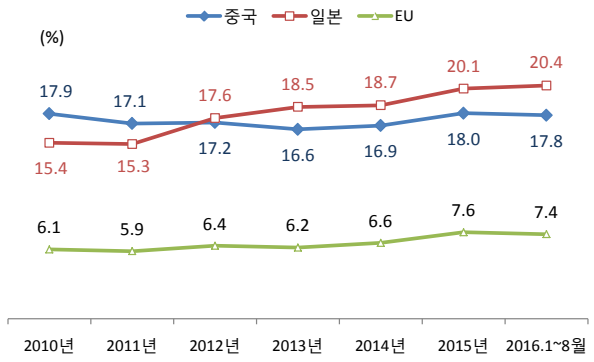
● 한편, 일본, EU 등 주요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전반적으로 상승

  * 주요국의 대미 수출비중(%, '10 → '15) : 일본 15.4 → 17.8, EU 6.1 → 7.4

◉ 한·미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에 힘입어 미국 수입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선전하며 우리의 대미 수출 호조와 비중 상승 요인으로 작용

● 2010년 이후 미국 수입시장에서 일본, 대만 등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며 2015년 3.2%로 2000년(3.31%) 이후 최고치 기록

주요국의 대미 수출 비중



주 : 일본은 '16. 1~7월, EU는 '16. 1~4월 누적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 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

	2010	2012	2014	2015
한국(a)	2.55	2.59	2.97	3.2
일본(b)	6.3	6.43	5.71	5.85
중국	19.07	18.7	19.9	21.5
대만	1.87	1.71	1.73	1.82
한일차(b-a)	3.75	3.85	2.74	2.65

자료 : 미 상무성

□ 베트남 : 수출 비중 상승

◉ 대베트남 투자로 형성된 생산네트워크가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기반하여 우리의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비중이 상승

●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2000~2016년 1~6월 누적액 기준 2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 한국의 직접투자('00~'16년 1~6월 누적, 억 달러) : 미국 854, 중국 644, 베트남 220, 홍콩 219

● 대베트남 투자로 인해 현지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으로의 자본재 수출은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

  * 대베트남 자본재 수출증가율(%) : 1.0('05) → 48.4('10) → 47.8('12) → 4.0('14) → 44.3('15) → 14.9('16. 1~8월)

● 베트남 해외투자 상위국인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도 투자액 확대에 따라 대베트남 수출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으로의 수출 비중(%, '10 → '15) : 일본 1.1 → 2.0, 싱가포르 2.1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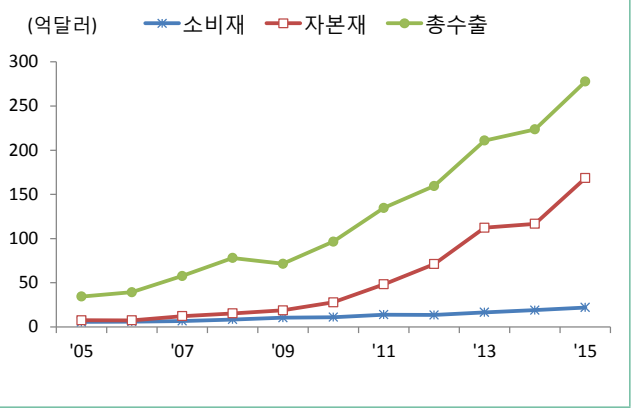
대베트남 직접투자액 추이

(백만 달러)

년도	신고금액	신고건수
2000	99	69
2005	390	382
2010	2,158	772
2012	944	754
2014	2,106	1,257
2015	2,875	1,603
2016. 1~6월	1,450	987

주 : 신고금액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성질별 대베트남 수출



자료 : 한국무역협회

03. 수출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은 성장률 둔화, 무역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어려움. 다만, 위안화 SDR 편입에 따른 위안화 강세, 소비재 수요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고려됨

◇ 미국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세 지속,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로 수출증가가 기대되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우려됨

◇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주목받으며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베 FTA 발효로 수출 호조가 계속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 Top3 수출대상국에 있어서 미국과 베트남(또는 ASEAN)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큼. 현재 우리 수출의 1/4에 달하는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중국으로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나 미국, 베트남으로의 수출 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와 중국간 대세계 수출의 상관관계는 점차 하락하고 있음

  * 한국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 상관관계 : 0.98 ('00~'07) → 0.70 ('10~'16. Q3)

◉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중국, 미국, 베트남의 무역환경 변화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들 국가의 내수시장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소비재, 서비스산업 등 유망 산업분야에 대한 진출전략 모색이 요구됨

- 주요국의 수출비중 변화에 따라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아세안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수출구조 변화가 필요

□ 국가별 무역환경 전망

◉ [중국] 무역구조 변화, 수입수요 둔화 지속 등으로 우리의 대중 수출 정체가 우려되나 위안화 SDR 편입, 소비재 수요 증가 등의 기회요인이 상존

- 중국은 향후 6%대 중속성장으로 수입 둔화세 지속 전망. 또한 현재의 가공무역·중간재 위주의 대중 수출구조가 지속될 경우, 대중 수출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

- 위안화 SDR 편입(2016.10.1. 시행)에 따른 중국 위안화 강세*,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증가, 소비재 수요 증가** 등은 대중 수출 확대의 새로운 기회 요인임

  * 위안화 강세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또한 중국 경제 안정성과 구매력 상승으로 중국 수입확대 가능성 존재

  ** 우리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임

- 한·중 FTA('15.12월 발효)에 따라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의 대한국 비관세 장벽은 2008년 이후 위생 및 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대한국 비관세 장벽(누적건수, 현대경제연구원) : 818건('00~'08) → 1,597('09~'15)

◉ [미국] 고용·소비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금년 중 미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전망됨에 따라 대미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하지만 미국이 체결한 17개 FTA 대상국 중 한국과의 무역수지가 가장 가파르게 악화되며 향후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우려됨

  *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달러) : 132억('11) → 5207억('13) → 283('15)

◉ [베트남] 중국을 대체할 우리의 제2의 생산기지로서 주목받고 있어 향후 대베트남 투자확대와 더불어 수출 비중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

- 베트남 경제는 물가안정, 내수개선, 외국인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베트남 FTA 발효('15.12월 발효)로 의류, 가전제품, 화장품류 등의 수출 증가 예상

  * 베트남은 30대 이하 연령층이 전체 9천만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소비잠재력이 높은 내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